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 성령강림후 스물여섯번째 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스물여섯번째 주일입니다.

# 2.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창립주일

11월20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 3. 북가주 코커스 총회

북가주 코커스 회장에 상향교회를 섬기는 송계영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 4. 북가주 평신도 지도자 훈련대회

평신도 지도자 훈련대회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 5. Charge Conference

일시: 11월19일(토) 장소: Wesley UMC

# 6. 여선교회 모임: 예배후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 7. 속회안내

11월13일 속회모임을 위한 속장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Drea Tea 모임을 마치고 모이겠습니다.

# 8. Dream Team

드림팀 모임이 2:30분에 모이겠습니다.(모이는분: 윤문섭 장로, 안광빈 집사, 최승희 집사, 장영심 집사, 김형기 집사)

# 9. 11월 행사안내

11월19일 구역회, 11월20일 추수감사주일, 창립21주년 주일  
11월27일 대강절 첫째주,

# 10. 교우동성

이윤숙 집사가 오늘 수술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집사봉사
11월13일	김규현 목사	김현숙 집사	윤문섭 홍윤기 임동재
11월20일	차경미 집사	한순옥 집사	김현덕 안광빈 구자홍
11월27일	차석준 집사	차경미 집사	차석준 김형기 최승희
12월04일	이수경 집사	차석준 집사	홍윤기 임동재 구자홍
11월안내	구경숙 안미나	11월초불점화	한순옥 장영심



Fresno 후레스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 목회자 칼럼

### 죽어야 사는 것

세상이 혼란 스럽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그렇고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 끝난 미국 대선은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미국 모든 매체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이유는 트럼프가 표현한 혐오발언들입니다. 이 혐오발언들은 KKK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는 차별이 놓여 있고, 그 차별은 결국 백인 우월주의를 정당화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지켜온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기회의 땅에 큰 흠집을 낼만합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과연 전문성에 문제가 없을가?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원수 특히 세계경찰을 표명했던 최강대국의 국가원수로서 트럼프가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잘 훈련되어 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한국 정치 평론가가 트럼프의 캠프를 따라다니면서 느낀 것은 백인 하층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거대한 기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통해 다시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정황에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를 독립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한국은 어제 100만명의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매일 매일 들어나는 새로운 뉴스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고, 몇몇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었다는 비선의 실체는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스럽게 합니다. 저마다 다른 관점과 목소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 교회와 교인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트럼프를 지지한 기독교인중 80%는 보수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대통령 하야시위에는 원로목사님들이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게 반대입장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교계인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정황에 저는 답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민감해서도 아니고,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목회자가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잘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다들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지심이 큰 생명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봐야 할 진리는 스스로 죽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마음을 지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진중히 이 정황에 스스로 죽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적 선택에 그리스도인 답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후레스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Fresno Korean UMC

예수님의 제사되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64장 (통13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김규현 목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김현숙 집사	눅 21:5-19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무너짐과 회복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353장 (통391장)
❖	찬양 Hymn	다함께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ti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예수님의 사람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저녁: 7시	회의실 교회력설교 주일저녁 찬양예배
토요일아침성경공부	아침 7시	예수님의 사람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영적갱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 2.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 3. 교회리더들을 위해: 모든 직분자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 4. 교회학교사역과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 7. 교인들 사업장을 위해
  - 8. 후레즈노 교회 주중사역을 위해
  - 9. 이용숙 집사 수술회복을 위해
- 11월 생일자: 김보흠 (11/10) 김용열(11/11) 윤문섭(11/22) 임혜린(11/8)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김혜진 윤문섭 임경희 임수호 조옥화 차석준 차경미 무명		
감사헌금	김규현 홍윤정 이하늘 무명		
십일조	김규현 홍윤정 장영심 최승희 최미란		
기타	재정반환	합계	\$789.00



11월 교회행사계획

- 11월6일 (주일)- 북가주 코커스 총회 (Daylight saving 종료)
- 11월12일 (토)- 북가주 평신도 지도자 훈련
- 11월13일 (주일)- 교회창립주일
- 11월19일(토)- 서킷 구역회 (웨슬리교회)
- 11월20일(주일)- 추수감사주일

나는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릴 때는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한다.

나와 친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긴다.